

로버트 A. 피터슨 박사, 계시록과 성경, 9차시, 일반 계시의 신학, 특별 계시를 통한 하나님 알기, 구약 의 다양성, 히브리서 1:1-2

© 2024 Robert Peterson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계시록과 성경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로버트 A. 피터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9, 일반 계시의 신학, 특별 계시를 통한 신을 아는 것, 구약의 다양성, 히브리서 1:1-2입니다.

우리는 체계적으로 사물을 정리하려고 노력하면서 일반 계시의 신학으로 신의 계시에 대한 연구를 계속합니다. 우리는 신의 일반 계시의 객관적 실체를 확인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어디서나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는 창조물에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시편 19:1, 2, 로마서 1:20, 21, 요한복음 1:4, 5). 그는 인간, 도덕적 본성에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로마서 1:32, 로마서 2:14, 15, 전도서 3:11). 그리고 그는 세 번째로 그의 섭리에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사도행전 14:15-17, 사도행전 17:26, 27).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남자와 여자에게 자신에 대한 지식을 폭격하십니다.

우리 주변의 세상은 창조주를 증거합니다. 우리의 도덕적 구성은 신을 증거합니다. 그가 비를 내리면서 인류에게 베푸는 혜택은 그를 증거합니다.

일반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드러내는가? 그것은 그의 존재와 영광을 드러낸다(시편 19:1). 그것은 그의 신성한 본성, 능력, 그리고 창조자로서의 역할을 드러낸다(로마서 1:20). 그것은 그의 거룩함, 정의, 그리고 심판의 사역을 드러낸다(로마서 2:14, 15). 그것은 그의 선함을

드러난다(사도행전 14:17, 사도행전 17:26, 27). 지혜, 아름다움, 위엄과 같은 다른 신성한 속성들이 이것들로부터 추론되는데, 이것들은 금방 떠오른다.

하나님의 일반 계시는 보편적이며, 항상 발생하며,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의 계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판단을 내립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의 본성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의 실체를 드러내는 판단을 내립니다(로마서 2:14, 15). 하늘이나 어떤 피조물을 볼 때, 우리는 그의 손으로 만든 작품을 봅니다. 우리는 그의 섭리적 선함에 노출되지 않고는 과일이나 채소를 먹을 수 없습니다(사도행전 14:15-17).

그는 사람들이 그를 찾을 수 있도록 민족의 시대와 경계를 정합니다, 행 17:27, 28. 하나님은 자신에 대한 지식을 숨기지 않습니다. 일반 계시에는 주관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인간에게 무엇이 전달되는가? 그들은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의 외부적 일반 계시를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하신다고 가르친다, 로마서 1장 20절. 그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의 속성을 인식한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

내적 일반 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판단을 내리거나 변명하거나 비난할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지식을 보여줍니다(로마서 2:15). 이런 의미에서 그들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과 정의에 대한 계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객관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이 계시가 우리에게 도달하도록 하셨지만, 우리는 창조, 양심 또는 섭리에서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할 만큼 충분한 이익을 얻지 못합니다. 일반 계시에 대한 역사적 및 현대적 관점은 크리스토퍼 모건과 저, 그리고 제가 편집한 *Faith Comes by Hearing, A Response to Inclusivism*이라는 책의 *General Revelation*이라는 장에서 다니엘 스트레인을

참조하세요. 저는 말해야 하고, 저는 그리스도를 알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하게 계시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억압하고, 왜곡하고, 오용합니다.

우리는 그의 외적인 일반 계시에 반대하고 교만함과 반항심으로 살아 계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상으로 바꿉니다. 우리는 위선, 로마서 2:2, 3, 그리고 더 많은 것들 속에서 우리의 도덕성을 행사함으로써 그의 내적인 일반 계시를 오용합니다. 또는 우리가 잘못되었다고 아는 것에 탐닉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촉구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적 선하심을 즐기지만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대신 우상을 숭배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마음속으로 만든 우상도 말입니다. 저는 지금 세 번째를 읽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14-17, 사도행전 17:26-28.

하나님은 인내심이 많으시지만, 그런 인간의 반항과 배은망덕함에 응답하지 않으실 리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일반 계시에 끈기 있게 반대하는 모든 사람에게 분노를 나타냅니다.

로마서 1:16-18. 그는 그런 사람들을 최악스러운 욕망에 내버려두고 우상숭배를 추구하고 죄를 행하며 어두워진 생각을 겪게 놔둔다. 로마서 1:21-28.

그는 옳은 것을 알면서도 그릇된 것을 행하는 자들을 정당하게 정죄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1:32. 도덕적 판단에 위선적인 자들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드러나는 진노의 날에 스스로 진노를 쌓고 있습니다.

로마서 2:5. 결론적으로, 이 사람들이 일반 계시에 대해 최악스럽게 반응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변명의 여지를 주지 않으신다. 로마서 1:20. 다른 의문들이 제기된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성경이 아닌 일반 계시에 기초한 자연 신학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진리는 일반 계시를 통해 빛납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 시편 19 :1. 신성한 본성, 능력, 그리고 창조자로서의 역할.

로마서 1:20. 거룩함, 정의, 심판의 역사. 로마서 2:14, 15. 그리고 그의 선함. 사도행전 14:17, 17:26, 27. 다른 진리도 분명 함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악한 자들은 벌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삶의 이유입니다. 등등.

하지만 많은 핵심 진리와 개념은 일반 계시만으로는 결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삼위일체. 예수.

그의 대속적 죽음. 그의 육체적 부활. 믿음으로 의롭게 됨.

성령. 그리고 다른 것들. 더욱이, 그리스도와 특별 계시를 떠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지식과 진리를 왜곡합니다.

불행히도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빛으로 달려가지 않고 빛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우상숭배로 바꾸고, 하나님의 길을 피하고 대신 명백한 죄를 선택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자연 계시의 빛에 귀를 기울이면 구원받을까요? 슬프게도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요'입니다.

자연 신학이 있다는 것에 조금 더 덧붙이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자연 신학은 많고, 모두 우상 숭배입니다. 사람들은 창조물을 보면서 신학을 갖습니다. 원시인들은 신학을 갖습니다.

그것은 왜곡된 것임이 보장됩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은 약간의 진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이나 신들의 존재.

어떤 종류의 초자연적 영역. 하지만 오 세상에. 음, 그렇죠, 지구상에 있는 인간 수만큼 자연신학이 있습니다.

수십억 개가 있지만, 그들은 우상숭배적입니다. 세계 교회의 목소리입니다. 로잔 언약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진정한 지혜를 보여줍니다.

150개국 이상의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인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복음이 온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좋은 소식이라고 믿으며, 그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사명에 순종하고, 모든 인류에게 그것을 선포하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한 명의 구세주와 오직 한 명의 복음만 있다고 확언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자연 속의 일반 계시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사람들이 불의함으로 진리를 억압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와 복음을 훼손하는 모든 종류의 종합주의와 대화를 거부하는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종교와 이념을 통해 동등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히려 예수를 세상의 구세주로 선포한다는 것은 죄인들의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모든 사람이 회개와 믿음의 온 마음을 다한 개인적 헌신으로 그를 구세주이자 주님으로 응답하도록 초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www.lausanne.org 등에서 온라인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Lausanne Covenant, Lausanne Covenant를 입력하세요.

종교적 융합, 누군가는 뭐라고 말할까요? 종교를 결합하는 거예요. 최근에 멕시코 사람들의 영상을 봤는데, 브라질에서는 미국보다 더 많은 노예가 브라질로 끌려갔고, 그들 대부분은 동화되어 브라질인이 되었고 아프리카 문화의 일부를 잃었지만, 아마도 일부는 유지했을 거예요. 하지만 브라질의 한 구역에서는 한 구역을 잃었고, 뚜렷한 아프로-브라질 문화가 있어요.

좋아요. 그리고 음식도 포함되는데, 그 중 일부는 꽤 맛있어 보이지만, 불행히도 로마 가톨릭 교회도 포함되고, 아프리카 전통 종교라고 부르는 것도 포함되는데, 지금은 브라질에 있고, 기독교가 아니고, 사람들이 춤을

추고, 다른 쪽과 접촉한다고 주장하는 여사제가 있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브라질로 수출된 로마 가톨릭교와 아프리카 전통 종교 사이의 종교적 융합입니다.

유쾌한 사람들, 친절한 사람들, 흥미로운 사람들, 하지만 그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만이 구세주이며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 구원을 받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직접적인 가르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에서 그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이 그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3:18, 그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정죄를 받았나니 이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이니라. 이는 빛이 세상에 온 심판이니 이는 예수를 가리킴이라. 사람들은 그들의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느니라.

악한 일을 하는 자는 다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오지 아니하는 것은 그의 행위가 드러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오니 이는 그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분명히 알게 하려 함이니라 . 요한복음 14:6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으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아무도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 께로 올 수 없습니다 . 그리고 이것은 요한의 말입니다. 예수께서 "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자신이 유일한 구세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재자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의 맥락에서, 아버지는 하늘에 집을 가지고 계시고, 예수는 길이십니다. 이는 길 또는 도로를 의미하는 그리스어입니다. 예수는 아버지의 하늘 집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즉, 그는 유일한 구세주입니다. 제가 말하는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 패턴을 따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그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숨어 주격, 부활, 그리고 생명이 따릅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이 경우, 나는 양의 문 또는 양의 문입니다. 그것은 그의 말과 비슷합니다. 나는 길이다.

그는 아버지의 천상의 집으로 가는 길이며, 그것은 천상의 그림입니다. 예수님은 지상의 양 우리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양 우리로 들어가는 문은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는 길이요, 유일한 구세주입니다. 그는 진리입니다. 그것은 의미하지만, 존에게는 그가 신을 계시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전에 없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리셨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17, 요한복음 1장 18절, 아버지의 집 에 있는 유일한 하나님을 그는 알게 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라. 1:14. 그리고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으니, 특히 그의 표적에서 그러하도다.

2장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영광은 아버지의 외아들이며, 은혜와 진리로 충만합니다. 예수는 길이며, 세상의 유일한 구세주입니다. 그는 진리이며, 신을 계시하는 자입니다.

그는 생명이시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요,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요한복음 5:24,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보다시피,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시자이시므로, 그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아버지를 믿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그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지금 거듭남으로 생명을 주십니다.

한 시간이 오고 있다고 그는 말한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왔고, 듣는 자들은 살아날 것이다. 그것은 지금 재생에 있다. 한 순간도 이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의 음성, 곧 인자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그들은 나올 것이다.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에 이르고,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에 이르게 됩니다. 행위는 구원하지 못하며, 행위는 믿음의 실체 또는 허위를 증명합니다. 예수는 길이요, 유일한 구세주입니다.

그는 진실이며, 신을 계시하는 자입니다. 그는 생명이며, 생명을 주는 자입니다. 나는 부활이며 생명입니다. 그는 죽은 지 사흘 된 친구 나사로를 무덤에서 일으켜서 말하고 증명합니다.

자매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주님, 주님, 그는 악취가 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 뒤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했지 않았느냐? 너희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죽음의 악취에 비추어 복음이 있는데,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고 소생시켰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역겨운 맥락에서 보여집니다. 죽음의 악취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 극복됩니다. 사도행전 4:12, 하늘에서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야 할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로마서 10:13~17. 똑같아요. 그는 세상의 유일한 구세주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바울은 구약의 선지자를 인용합니다. 그는 요엘 2:32를 인용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요엘에게는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야훼였습니다. 바울에게는 야훼인데, 그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그들이 들어본 적도 없는 자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전파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떻게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기록된 바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사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자가 와서, 그를 보자마자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의 발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가 "주님, 누가 우리에게서 들은 것을 믿었습니까?"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2장은 그 위대한 53절의 일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옵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을 받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요한일서 5장은 더 이상 명확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구별합니다. 오, 아름다움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아니요.

큰 부를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아니요. 큰 힘을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아니요. 그것들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11, 12.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그의 아들 안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5:11, 12절. 아들을 가진 자는 생명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갖지 않은 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 다른 어떤 것이 사실일 수 있을까요? 하지만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방금 일반 계시가 구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구원받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해요. 그러면 일반 계시가 결함이 있다는 말인가요? 아니요, 모든 것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것은 삼위일체나 복음을 드러내지 않지만, 아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언가가 부족하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반 계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실하고 명확하며,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진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일반 계시나 계시를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는 계시를 받는 사람, 타락한 인간에게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은 사람들이 일반 계시를 통해 하나님께 긍정적으로 응답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1장과 3장은 아무도 스스로 그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모두가 유죄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의로울 것을 요구하십니다. 1:18. 그러나 의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로마서 3:10. 창조를 통해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그의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19-21. 하지만 로마서 3:11, 이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시는 것은 사람들이 그분을 찾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도행전 17:27. 로마서 1:18-21. 그러나 은혜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로마서 3:11.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은 창조주를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로마서 1:21-25. 하지만 그들은 창조주를

피조물과 비슷한 우상으로 바꾸고, 눈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23-25. 로마서 3:18. 끔찍한 교환이 있습니다.

신을 이미지로 바꾸세요. 신의 진실을 거짓말로 바꾸세요. 이 반항과 그에 따른 죄책감은 보편적입니다.

바울은 문제가 신이나 그의 일반 계시에 있지 않다고 강조합니다. 바울은 문제가 신이나 그의 일반 계시에 있지 않고 신과 그의 일반 계시를 보편적으로 거부하는 데 있다고 강조합니다. 일반 계시는 선교와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이 질문을 촉발하는 것은 바울이 복음 전파에서 일반 계시에 호소하는 관행입니다.

바울은 동료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전파할 때, 구약을 인용하여 그가 율법과 선지자들을 성취했다고 지적합니다. 사도행전 13:13~52를 보십시오. 하지만 다른 종교의 사람들에게 전파할 때, 바울은 복음을 더 큰 틀에 둡니다.

사도행전 14:8-18에서 우리는 바울이 창조주로서의 하나님과 일반 계시에서의 그의 증거를 먼저 지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7:16-31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그는 또한 창조주로서의 하나님과 그의 참된 본성과 창조와 섭리를 통한 증거를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에게 일반 계시는 구원에 충분하지 않지만 복음을 위한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선교사들이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은 일하시며, 불신자들에게 자신의 존재와 영광을 전달하십니다. 시편 19:1, 그의 신성한 본성, 능력, 그리고 창조자로서의 역할. 로마서 1:20, 그의 거룩함, 정의, 그리고 마음에 기록된 법을 통한 심판의 역사.

로마서 2:14, 15, 그리고 그의 선함. 사도행전 14:17, 사도행전 17:26, 27. 선교사들은 복음을 나눔으로써 이전의 의사소통을 반복하고, 명확히 하고, 확장합니다.

선교사는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고, 신자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도록 촉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에서 불신자들과 맺으신 접촉점을 토대로 구축합니다. 이로써 일반 계시에 대한 강의를 마칩니다 . 특별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

히브리서 1:1과 2에서 알 수 있듯이 구약과 신약의 계시는 구별되지만,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근본적으로 일치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옛날에 여러 번 여러 방법으로, ESV,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날에 그는 그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는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셨고, 그를 통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이전에 보았듯이 큰 대조와 같은 차이점이 있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하나님께서는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날에 그는 그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은 구약과 신약에서 자신을 계시합니다. 그는 성경 계시의 저자입니다. 그는 계시자, 말씀하시는 신입니다.

사실, 성경 전체에 걸쳐, 특히 구약과 신약에서 점진적인 계시가 있지만, 구약과 신약의 계시는 모두 하나님의 신성한 말씀이기 때문에 통일되어 있습니다 . 인간의 말로 간단히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 :1 과 2에서도 하나님의 계시가 점진적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

즉, 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신의 백성에게 점차적으로 자신을 계시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고, 그의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계시의 점진적인 본질은 불가피하게 역사를 통해 인간에게 하나님이 점진적으로 제공하신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통일성과 점진적인 본질은 예수님의 친숙한 말씀인 마태복음 5:17과 18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납니다. 산상수훈의 일부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성취하러 왔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까지는 율법의 일점 일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우리는 계시의 통일성을 세 가지 면에서 봅니다. 예수께서는 율법과 선지자들을 폐지하지 아니하고 성취하신다고 가르치십니다.

그것이 구약의 계시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영속성에 대한 그의 생생한 주장과 그것이 모두 성취될 것이라는 그의 강조. 그러니까, 세 가지 방법입니다.

그는 파괴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성취하기 위해 왔습니다. 첫째, 그는 말씀하시기를, 일점 일획이 지나기 전까지는 일점 일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그것은 영구적입니다.

모든 것이 성취될 때까지, 즉, 그는 그것이 성취되거나 완수될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말씀하신 목적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계시의 점진적인 본질도 분명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은 예수 안에서 성취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구약의 계시, 다양성. 저는 여기서 저의 전임 체계신학 교수이자 지금은 주님과 함께 있는 로버트 J. 던스바일러에게 공을 돌리고 싶습니다. 그는 펜실베이니아 주 해트필드에 있는 성경신학대학원에서 가르쳤고, 우리 중 많은 사람, 그의 지도를 받은 우리 모두에게 자신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는 확실히 방법과 그의 위대함 면에서 그것을 나에게 남겼습니다. 다른 사람들, 특히 우리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그의 은혜로운 매너를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와우. 다양성이 있네요.

하나님은 구약성경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을 계시합니다. 히브리서 1:1. 여기에는 신현, 환상과 꿈, 우림과 둠뭉, 제비 뽑기, 기적, 들리는 말, 예언적 선언이 포함됩니다. 우리는 차례로 이것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신현은 신이 인간의 감각, 특히 시각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신이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나 자신을 보이게 하셨습니다(출애굽기 3 : 1-6). 모세가 얼마나 놀랐는지요. 그는 전에 이런 떨기나무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네가 내가 파라오에게 무엇을 할지 보리라. 그는 강한 손으로 그들을 내쫓을 것이요, 내 백성을 내쫓을 것이요, 강한 손으로 그들을 그의 땅에서 몰아낼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며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노라.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그들에게 나를 알리지 아니하였노라.

나는 또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잘못된 장을 읽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출애굽기 3 장입니다.

모세는 미디안의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 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양 떼를 광야의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천사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오는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는 보니, 덩불이 타고 있었지만 타지 아니했습니다. 모세는 말했습니다. 이 큰 광경을 보기 위해 돌아서겠습니다. 덩불이 왜 타지 않습니까? 주께서 그가 돌아서서 보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덩불에서 부르셨습니다. 모세, 모세.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말고, 발에서 샌들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내가 네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얼굴을 가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보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이 눈에 보이는 모습에도 말입니다. 그것은 거룩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자신을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그곳에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을 멈춘 지 1초 후, 그곳은 더 이상 성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농담삼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오늘 일어났다면, 모세나 다른 누군가가 모래, 성모래 따위를 담은 작은 병을 팔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신현은 보이지 않는 신이 인간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신은 이스라엘에게 기둥과 같은 것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 출애굽기 13:31.

그리고 이사야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잠깐만요. 하느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신현의 요점입니다. 보이지 않는 신이 부분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사야는 그를 왕좌에 앉은 왕으로 보았습니다.

웃시아 왕이 죽은 해, 이사야 6장에서 나는 주님이 높고 들어올려진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옷자락, 그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의 위에는 세라핌이 서 있었습니다.

각각 여섯 개의 날개가 있었습니다. 두 개로 얼굴을 가렸고, 두 개로 발을 가렸습니다.

두 마리와 함께 그는 날아갔다. 그리고 한 마리가 다른 마리를 부르며 말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주여. 온 땅이 그의 영광으로 가득하다.

그리고 문지방의 기초가 부르는 자의 목소리에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집은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나는 말했습니다. 나에게 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길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요, 입술이 더러운 백성 가운데 거하노라. 내 눈이 만군의 주이신 왕을 보았노라. 이젠 세 가지 예일 뿐이다.

불타는 떨기나무. 이사야는 주님이 높고 들어올려진 것을 보았다. 하나님은 은혜롭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셨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셨다.

낮과 밤 구름 기둥, 불기둥. 세상에, 그들은 야간등을 켜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큰 야간등.

오, 이런. 환상과 꿈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포함한 구약 성도들에게 자신의 뜻을 알리는 수단입니다. 다니엘 10장, 4장, 5장의 환상에서. 그리고 창세기 28장의 야곱의 꿈에서.

다니엘 10:4~9 첫째 달 24일에 내가 큰 강 티그리스 강둑에 서 있을 때에 눈을 들어 보니, 우바스에서 온 순금 띠를 허리에 두른 아마포 옷을 입은 사람이 있더라. 몸은 붉은 삼베 같고 얼굴은 번개 모양 같고 눈은 타오르는 햇불 같고 팔과 다리는 청동 빛나고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 같았더라. 나 다니엘만이 그 환상을 보았으니,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그 환상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큰 떨림이 그들에게 닥쳤고, 그들은 숨으려고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나는 홀로 남겨졌고, 이 큰 환상을 보았고, 나에게서는 힘이 남지 않았습니다. 나의 빛나는 모습은 두려울 정도로 바뀌었고, 나는 힘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때 나는 그의 말소리를 들었고, 그의 말소리를 듣는 동안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야곱의 환상은 창세기 28:17, 10~17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후, 다음 강의까지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약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다양한 방식, 특별 계시의 다양한 방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시는 모든 사람에게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시간과 특별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가는 길에 꿈을 꾸니다.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갔다. 그는 어떤 곳에 이르러서 그날 밤을 거기에서 지냈다. 해가 졌기 때문이다. 그는 그 곳에서 돌 하나를 가져다가 머리맡에 두고 그 곳에 누워 잠을 잤다.

그리고 그는 꿈을 꾸었고, 또 꿈을 꾸었고, 보라, 땅 위에 사다리가 세워져 있었고,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보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로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라, 주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주, 곧 네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니,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네 자손은 땅의 티끌과 같을 것이요,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널리 퍼질 것이요, 너와 네 자손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가는 곳마다 너를 지키며 이 땅으로 다시 데려오리라. 내가 네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자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르되, 참으로 여호와께서 이곳에 계시느니라.

그리고 나는 그것을 몰랐다. 그리고 그는 두려워하며 말했다. 이곳은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고 이곳은 천국의 문이다.

다음 강의에서는 구약의 특별 계시 수단에 대한 강의를 다룰 것입니다.

이것은 로버트 A. 피터슨 박사가 계시와 성경에 대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세션 9, 일반 계시의 신학, 특별 계시를 통한 신을 아는 것,

구약의 다양성, 히브리서 1:1-2입니다.